

(인터뷰) 파리 신기후협정, GCF 재정 확충방안 마련해야 – GCF 사무총장

2015.4.30, Megan Rowling, Alister Doyle / 올해 말 파리에서 마련될 신기후협정은 개도국의 기후관련 비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지원 자금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GCF 사무총장이 말했다.

헬라 쉘로호 GCF 사무총장은 톰슨 로이터스 재단(Thomson Reuters Foundatio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들이 신설 기구인 GCF 의 규모 확대를 신기후협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국이 있는 한국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사무총장은 “GCF 를 통한 재원의 성장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협정을 성공적으로 도출하는 데에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 말 33 개 정부가 GCF 에 거의 102 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실제 기여금으로 바꾸는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4 월 30 일 목요일 현재, 공약의 약 40%는 언제 기여가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약정으로 확약되었다. 이는 같은 날을 마감시한으로 예상 목표했던 50%에는 미달한 결과이다.

헬라 쉘로호 사무총장은 12 월 COP21 까지 GCF 금고에 얼마만큼이 실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7 월과 9 월 지속가능개발 관련 주요 국제회의 등에서 GCF 에 더 많은 재원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며, GCF 에 대한 총 기여금은 “100 억 달러를 훨씬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GCF 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가 극한 기후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보다 청정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사무총장은 또한 멕시코와 가봉 등 개도국들이 신기후협정에 제출할 자발적 기여인 INDC 를 이행하는 데 있어 GCF 의 지원을 활용한 뜻을 비추고 있다고 말했다.

\$1,000 억 ... ‘여전히 혼란’

지난 2009 년 선진국은 2020 년까지 연 1,000 억 달러의 기후 재정을 마련하여 취약국을 돕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 액수는 연 수십억 원에 그치고 있다.

쉘로호 사무총장은 파리 신기후협정(2020 년 발효)이 1,000 억 달러 이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금은 어떻게 1,000 억 달러를 마련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번역_헬라 사무총장 인터뷰]

여전히 어떤 유형의 재원이 연 1,000 억 달러에 해당하는지, 현재 수준에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혼란은 있다.

GCF 가 올 가을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승인을 개시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무총장은 말했다.

GCF 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보다 청정하게 만드는 기술 재원지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GCF 가 석탄 및 기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해오고 있다.

쉐흐로흐 사무총장은 GCF 의 지원을 받는 기술은 UN 기후 패널의 권고사항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UN 기후 패널은 세계는 이미 탄소예산(carbon budget)의 2/3 를 써버렸다고 말한바 있다.

“우리의 소임은 BAU 에서 저탄소 발전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쉐흐로흐 사무총장은 말했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보다 회복력을 갖추고, 재난을 준비하고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라는 기대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 부담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고 사무총장은 말했다.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도국 재정지원 수준은 반드시 계속 증가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원 증대는 선진국, 민간분야, 신규 재원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GCF 이사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대안 재원으로 과거 나온 제안들은 그린본드, 항공 및 관광세 등이 있다.

쉐흐로흐 총장은 개도국을 위해 보다 회복력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전체 파이(pie)를 키울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 <http://www.trust.org/item/20150430135638-0ufyq/>